

제 4 교시

생활과 윤리 영역(전통 윤리)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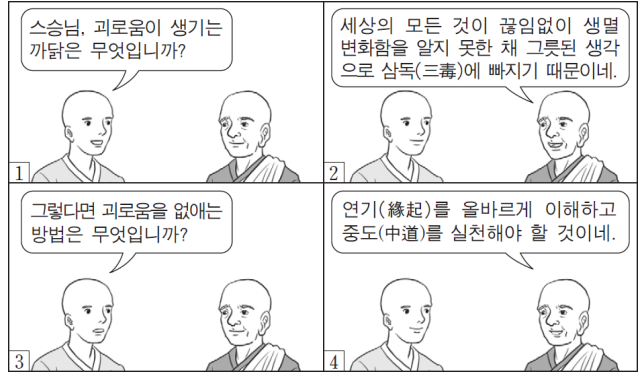
수험 번호

\* 확인 사항

- 발문 아래 문항 정보의 aaaabb-cc-dd에서 aaaa는 시행 학년도, bb는 시행 월, cc는 문항 번호, dd는 과목 이름을 의미합니다.  
ex. 201406-02-윤사: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사상 2번 문항
- 발문 아래 문항 정보의 ★은 출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높을수록 선지나 제시문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발문 아래 문항 정보의 색은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평이한 문항이며, 붉은색은 다소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의 문항입니다. 생활과 윤리 범위를 넘어가는 오답 선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있는 문항은 없습니다. 제시문 추론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세요.
- 해설이 필요한 문항은 발문 아래 문항 정보를 보고 개별적으로 해설을 찾아보시거나, ebsi의 해설 강의를 참고하세요.
- 9월 26일(土)과 10월 17일(土) 오후 11시에 각각 생활과 윤리 최상위 모의평가를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해당 시간에 정확히 35분간 <http://oq.atom.ac> 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고품질 모의평가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득점자에게 KFC 기프티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2.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09-01-윤사 ★



- 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철학적, 예술적 논변을 즐기며 산다.
- ②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하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 ③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생의 윤희를 추구하며 산다.
- ④ 만물 간의 의존성을 자각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
- ⑤ 만물의 실체를 정립하기 위해 대자연의 섭리에 귀의하며 산다.

1.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06-06-윤사 ★★★

(가)	인연(因緣)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생성된 현상도 무상하다. 현상은 '나'가 아니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를 속박하는 이 법(法)을 끊어버리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text-align: center;">(A)</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text-align: center;">(B)</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d></tr> </table> <p>[가로열쇠] (A):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 제법 ○○ (B): 주지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운 명나라 왕수인의 호. ○○학</p> <p>[세로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중도(中道)를 추구하며 진리에 이르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 ②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마음이다.
-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이다.
- ⑤ 백성의 욕망을 줄이고 그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통치 원리이다.

3. 감,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감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09-03-윤사 ★★

감: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을: 누구나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마음[所不忍]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인이다. 누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所不爲]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 의이다.

- ① 인의가 본래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 ② 인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③ 인의가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인의가 결과적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인의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11-03-윤사 (출제)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선비는 예법(禮)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5.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6-06-윤사 ★★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 ① 경험적 인식을 통해 불변적 자아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 ② 이성적 분별을 통해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
- ③ 모든 감각이나 사유 능력을 발휘하여 사물의 변화에 임한다.
- ④ 사물의 소박한 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한다.
- ⑤ 획일적 평등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식의 상대성을 초월한다.

6.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9-02-윤사 ★★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진여(眞如)를 본다. 모든 존재와 그 현상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다.

- ①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탐욕을 버려야 한다.
- ② 자아의 실체에 대한 믿음으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윤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 ④ 모든 현상의 주체인 마음과 외부의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 ⑤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자연에 귀의해야 한다.

7.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09-03-윤사 ★★★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 ① 자연의 질서에 위계를 부여하는 성인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② 자연 친화적 삶을 위해서 이론적 지식의 확충을 중시한다.
- ③ 차별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정신의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
- ④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한다.
- ⑤ 신인(神人)이나 군자가 되기 위해서 덕성의 함양을 추구한다.

8. 다음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11-10-윤사 ★★★

들판에 커다란 가족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족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 쓸모 없음[無用]이 곧 쓸모 있음[用]임을 아는 것이 큰 앎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인가?

- ① 사물의 용도를 잘 파악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② 자연을 있는 대로 보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③ 가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④ 자연의 진정한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 ⑤ 시비 판단의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절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9.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11-15-윤사 ★★★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애처롭다. 사람은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을: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 ①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 ②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 ③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가?
- ④ 도(道)의 실현을 위해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가?
- ⑤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德)이 실현된다고 보는가?

10.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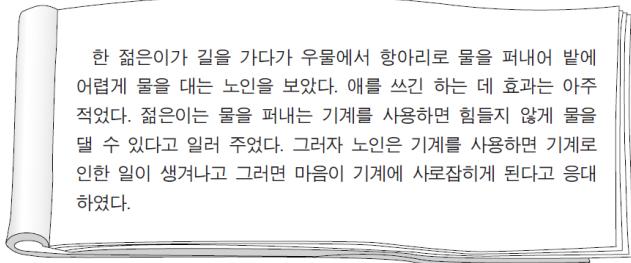
201306-15-윤리 ★★★

여러 인연(因緣)으로 생긴 법을 무(無)라고 하며, 거짓 이름[假名]이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空) 아닌 것이 없다.

- ①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 ② 허심(虛心)으로 시비와 선악을 엄격하게 분별해야 한다.
- ③ 무명(無明)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성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
- ④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 ⑤ 현실적 존재로서 '나'가 타인과 분리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11. 그림의 이야기를 쓴 동양 사상가가 주장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09-04-윤리 ★★★★★ (매우 중요!!)



- ① 욕망의 절제를 통해 자신의 주관을 실현해야 한다.
- ② 관심(觀心)을 통해 자연적 순박함을 유지해야 한다.
- ③ 배움을 통해 사회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④ 도구의 편리함에 좌우되지 않는 분별지(分別智)를 함양해야 한다.
- ⑤ 사물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나 소요(逍遙)를 추구해야 한다.

12. 다음은 어느 고대 중국 사상가의 글이다.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311-03-윤리 ★★★

“훌륭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훌륭한 왕은 자신의 공적이 온 세상에 미쳐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란 베풀어지고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만물을 각기 만족시키는 것이다.”

- ① 허심(虛心)을 통해 물아 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②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지식의 확실성을 추구한다.
- ③ 옳고 그름의 분별을 위해서 자신의 주관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 ④ 훌륭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성을 중시한다.
- ⑤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익을 서로 나눌 것을 강조한다.

13.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11-05-윤리 ★★

색(色)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受)는 물위의 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음을 깨달아라.

- ① 실체로서의 나를 확립하기 위해 팔정도를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 ② 궁극적 목표인 도제(道諦)에 이르기 위해 탐욕을 버려야 한다.
- ③ 만물은 무상(無常)하므로 무명(無明)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존재가 공(空)함을 자각하여 아집(我執)을 버려야 한다.
- ⑤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 불변함을 깨달아야 한다.

14.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옳은 것은?

201206-02-윤리 ★★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受)·상(想)·행(行)·식(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물은 그 실상이 공이다. 거기에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도 줄어듬도 없다.

- ① 오온(五蘊)의 무상함을 부정하여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다.
- ② 바라밀(波羅蜜)을 실천하여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 ③ 연기(緣起)를 깨달아 고정 불변의 자아를 확립한다.
- ④ 불성(佛性)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⑤ 허심(虛心)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1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 B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201206-04-윤리 ★★

(가)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해 준다.
(나)	A. 그러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다. B.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A	B
①	항심(恒心)을 갖게 하라	항산(恒産)을 갖게 하라
②	예법(禮法)을 따르게 하라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
③	분별적 지혜를 쌓게 하라	마음을 비워 사욕이 없게 하라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라	사회적 이익을 똑같이 나누게 하라
⑤	현자를 숭상하지 않게 하라	화귀한 재화를 중히 여지지 않게 하라

16. 밑줄 친 '나'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201206-13-윤리 ★★

'나'는 만물을 아끼기는 하지만 어질게 대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어질게는 대하지만 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한 이를 친애하고 나서 백성을 어질게 대해야 하며,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무명(無明)으로부터 벗어나 자비를 베푼다.
- ② 심재(心齋)를 통해 제물(齊物)에 이르도록 힘쓴다.
- ③ 자기를 수양(修養)하여 이웃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 ④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쌓아 자연스러움을 회복한다.
- ⑤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

17.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206-20-윤리 ★★★

- 도(道)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있고 기왓장에도 있으며 똥과 오줌에도 있다. 이처럼 도는 만물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깊은 물 속의 물고기에서 높은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의 성품이 모두 같으니, 나의 사랑은 산과 골짜기의 세상 끝까지 미친다.

- ①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②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가 지닌 유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 ③ 모든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
- ④ 생태계의 위계적 질서를 위해 생명 가치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 ⑤ 장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

18.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201209-01-윤리 ★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법(法)에 머물러 바 없이 보시(布施)를 해야 한다. 이른바 색(色)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할 것이며, 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相)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할 것이다.

- ①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타인에게 자비를 베푼다.
- ② 중도(中道)를 실천하여 실체로서의 나를 확립한다.
- ③ 바라밀(波羅蜜)을 행하여 타고난 이기심을 제거한다.
- ④ 무명(無明)에 이르기 위해 조건 없는 선행을 실천한다.
- ⑤ 만물의 불변성을 깨달아 초월적 무(無)의 세계를 추구한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209-09-윤리 (출제)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한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저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으나 이쪽에서 보면 보인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 …(중략)… 옳음이 있기에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기에 옳음이 있다. 그리하여 성인은 천(天)에 비추어 본다.

- ① 관심(觀心)을 통해 만물이 지니는 상대성을 파악해야 한다.
- ② 오감(五感)으로 진리를 체득하여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③ 연기(緣起)를 자각하여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야 한다.
- ④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소요(逍遙)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 ⑤ 좌망(坐忘)을 통해 만물의 시비를 분별하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

20.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3점]

201209-18-윤리 ★

공(公)이란 인(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만을 생각하는 사(私)를 깨뜨리고 나를 없앤 공을 크게 만들어 사물과 나 사이에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천지(天地)가 한 집안처럼 되어 남의 괴로움과 아픔이 내 몸에 질실하게 느껴지게 된다.

- ① 현실을 초탈하여 만물일체의 인(仁)을 이룬다.
- ② 마음을 엄숙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 ③ 본성을 함양하여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난다.
- ④ 경(敬)에 힘써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킨다.
- ⑤ 인의예지의 덕(德)을 실천하여 양지(口知)를 생성시킨다.

21.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211-01-윤리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緣)하여 행(行)이있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긴다. 무명이 멸(滅)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 ① 연기(緣起)를 통해 만물의 실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수행을 통해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닫는다고 본다.
- ③ 불성을 어둡게 하는 삼독(三毒)이 고통을 낳는다고 본다.
- ④ 오온(五蘊)으로 된 '나'에 대한 집착이 탐욕을 만든다고 본다.
- ⑤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이 자비(慈悲)를 일으킨다고 본다.

22. 다음 사상가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201211-18-윤리 ★★★

손발이나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멈추게 하라. 형체를 떠나 지식을 버려라. 그리하여 큰 통합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좋아함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 변화하니 일정한 것에 집착함이 없어진다.

- 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한다.
- ② 오감(五感)으로 터득한 진리의 초월성을 깨닫는다.
- ③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여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난다.
- ④ 관심(觀心)을 통해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를 깨닫는다.
- ⑤ 마음을 모아 사(私)를 깨뜨리고 공(公)적인 예(禮)를 따른다.

23. 다음 사상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106-03-윤리 ★★★

비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생멸(生滅)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도 그 본체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 ①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차별 의식을 버린다.
- ② 자아의 개체성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 ③ 감각을 기초로 선악과 시비를 명확히 구분한다.
- ④ 언제나 산술적 중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⑤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24. (가), (나) 사상에 나타난 '천(天)'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106-15-윤리 ★★★

(가) 천(天)이 못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들이 마음에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나) 소나 말이 네 다리가 있는 것이 천(天)이고,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의 코를 꿰는 것이 인위이다.

- ① (가)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자연법칙으로 보았다.
- ② (가)에서는 인간이 제어하여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 ③ (나)에서는 만물이 지닌 자연 그대로의 본성으로 보았다.
- ④ (나)에서는 만물의 운행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 ⑤ (가), (나)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다.

25.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111-03-윤리 ★★★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果]도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면 모든 것은 괴로움[苦]으로 나타난다.

- ① 관심(觀心)을 통해 만물의 불변함을 자각하는가?
- ②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인간은 독립된 실체인가?
- ③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인가?
- ④ 불성(佛性)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라밀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고제(苦諦)는 삼독(三毒)의 제거로 도달되는 경지를 가리키는가?

26.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11-17-윤리 ★★

(가)	성인(聖人)이 조용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성인이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성인이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나)	임금 은혜 한없는 줄 사람들이 아시는가? 임금 은혜가 아니면 온 백성이 살겠느냐? 이 몸은 한없는 성은(聖恩) 갚고 말려 하노라.

- ① 의(義)를 실천하는 기본적 덕목이다.
- ② 연기(緣起)에 따른 보은을 행하는 덕목이다.
- ③ 동기간(同氣間)에 지니고 있는 자연적 친성이다.
- ④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규범이다.
- ⑤ 도(道)가 무너져 나타난 규범으로 혼란의 원인이다.

27. 다음 사상가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006-12-윤리 ★★★★★ (매우 중요!!)

천(天)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할 바를 알면 지극한 것이다. 천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천처럼 살아간다. 사람이 할 바를 아는 사람은 그의 지식이 헤아리는 바를 가지고 그의 지식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길러낸다. 그렇지만 지식이란 의거하는 바가 있는 뒤에야 합당하게 되는데 지식이 의거해야 할 바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내가 말하는 천이 사람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천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① 천명(天命)이 자신의 본성임을 자각해야 한다.
- ② 자연의 재화로 백성의 편안함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자연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할 바를 구분해야 한다.
- ④ 상대적인 지식의 경계를 넘어 도(道)와 합치해야 한다.
- ⑤ 천을 알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한다.

28.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201009-03-윤리 ★

- 대승(大乘)의 뜻은 광범위하나, 심법(心法)은 하나이다. 이 마음에 의하여 대승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 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만 가지 법이 없어진다.
- 일(一)이란 십(十)에 포섭된 일(一)이다. 간략하게 일부분을 가지고 일(一)이라 하고 십(十)이라 하여 시작하는 문(門)을 삼지만, 하나에 포섭된 것은 십문(十門)이 마찬가지로이니 이른바 십(十)이라고 하는 것도 일(一)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 ① 선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심(觀心)을 행한다.
- ② 현실의 삶을 벗어나 종교적 계율(戒律)을 지킨다.
- ③ 만물의 불변하는 실체를 깨닫기 위해 선정(禪定)을 행한다.
- ④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지혜(智慧)를 닦는다.
- ⑤ 부처의 마음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보시(布施)를 행한다.

29.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09-04-윤리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하며, 지자(智者)라는 사람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게 한다. …(중략)… 백성의 위에 있고자 한다면 말함에 스스로를 낮추고, 앞에 있고자 한다면 자기의 몸은 뒤에 두어야 한다.

- ① 인의(仁義)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삶을 지향한다.
- ②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겸애(兼愛)를 실천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여 만물의 화육(化育)을 도모한다.
- ④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겸손의 예(禮)를 실천한다.
- ⑤ 양지(良知)를 보존하여 타고난 도덕성을 함양한다.

30.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011-03-윤리 ★★★

차이[差]의 관점에서 볼 때, 크다[大]고 하면 이 세상에 크지 않은 것이 없고, 작다[小]고 하면 작지 않은 것이 없다. …(중략)… 사람마다 지혜를 감추고 있으면 미혹됨이 없어지고, 사람마다 덕을 감추고 있으면 간사함도 없어진다. 밖으로 덕을 내세우는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 ① 오감(五感)을 통해 참다운 지혜를 쌓아 간다.
- ②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선입견과 주관을 버린다.
- ③ 인위(人爲)를 일으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킨다.
- ④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몰아일체의 경지에 이른다.
- ⑤ 마음을 함양(涵養)하여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

31.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201011-17-윤리 ★★★

기분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 않고 괴로운 감촉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유쾌하거나 괴롭거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 좋다고 취하거나 싫다고 내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소멸되며 어리석음이 사라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① 만물은 절대 불변한다는 원리를 체득한다.
- ② 시비(是非)를 분별하여 회통(會通)에 이른다.
- ③ 연기(緣起)를 깨달아 자신을 실제로 인식한다.
- ④ 지혜(智慧)를 닦아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 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32. 다음은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3점]

200906-10-윤리 ★★★

성인(聖人)은 탐욕하지 않도록 하여 얻기 어려운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며, 배우지 않음을 배우도록 하여 못 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만물이 스스로 그러함을 도와줄 뿐 감히 작위하지 않는다. …(중략)… 얻음과 잃음 중에 무엇이 더 병이 되는가?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으며, 머무를 곳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길이 오래갈 수 있다.

- ① 자연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다.
- ② 백성은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 교화된다.
- ③ 인간의 관습적 규범은 자연스런 덕성에서 기인한다.
- ④ 문명적 향락은 인간의 타고난 윤리적 성향을 해친다.
- ⑤ 성인(聖人)은 학문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을 안다.

3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06-20-윤리 ★★★

도(道)에는 본래 한계가 없고 언어에는 본래 항구성이 없는 것이다. …(중략)…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올가미는 토끼잡이에 쓰는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잊어버리듯이, 언어는 뜻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뜻만 알면 잊어버려야 한다.

- ① 진리는 이론적 탐구의 결과이다.
- ② 유용성은 분별적 지혜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은 절대적이다.
- ④ 도(道)는 부분적인 지식의 축적으로 얻어진다.
- ⑤ 큰 지혜는 나를 구속하는 일체(一切)를 잊는 데서 온다.

34. 다음 사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09-01-윤리 ★★★

생(生)과 사(死)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중략)... 참된 사람이어야만 참된 앎이 있다.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으며, 무엇을 하려고 피하지도 않는다.

- ① 분별적 지혜를 지닌 존재
- ② 선(善)한 가치를 지닌 존재
- ③ 세속의 가치에 초연한 존재
- ④ 천명(天命)을 부여받은 완전한 존재
- ⑤ 자연의 기품을 이어받은 존귀한 존재

35. 다음 내용이 강조하는 수양 태도로 옳은 것은?

200909-05-윤리 ★★

수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일 뿐이다. 마음을 쓸 때에는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옳음을 궁구(窮究)할 때에는 작은 착오도 살피기를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이 없어야 한다. 분노와 욕심을 막아 선을 행하며 악을 고치기에 미흡할까 두려워하라.

- ① 관심(觀心)으로 홀어진 마음을 수습한다.
- ② 심재(心齋)를 통하여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난다.
- ③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 ④ 양지(良知)를 회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공부에 힘쓴다.
- ⑤ 사물의 이치에 따라 사물을 대하기 위해 마음을 집중한다.

36. 다음 사상과 일치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200909-11-윤리 ★★★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이다. 화가 난다면 과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욕망으로 인해 인식이 생기고, 이로써 생멸(生滅)의 영원한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 ① 만물의 실상은 항상 변화 없이 고요하다.
- ② 선정(禪定)을 통해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 ③ 자기의 독창적인 관점을 확립하여 현실을 파악한다.
- ④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체로서의 나를 깨닫는다.
- ⑤ 현상과 진리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37. (가), (나)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00806-03-윤리 ★

(가)	○ 통치자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닦고서 남을 다스려야 한다. ○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
(나)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뭇다. ○ 군주가 민심을 배반하고 학정(虐政)을 일삼으면 그는 참다운 군주가 아니다. 이럴 경우 혁명을 일으켜도 결코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

- ㄱ. (가)는 예(禮)에 의한 교화를 중시한다.
- ㄴ. (가)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고른 분배를 중시한다.
- ㄷ. (나)는 정명론을 반대하고 혁명론을 주장한다.
- ㄹ. (나)는 인정(仁政)의 실현을 위해 의(義)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8. 다음을 주장하는 사상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806-12-윤리 ★★★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는 이유는 그가 사는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을 모르는 이유는 그가 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하나의 입장만 고집하는 지식인(道)을 모르는 이유는 그가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 ①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외부에서 구해야 한다.
- ② 사회적 규범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
- ③ 인간의 본성은 상벌(賞罰)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 ④ 오감(五感)에 의한 지식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인간은 자신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므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39. ㉠과 관련된 사례를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09-02-윤리 ★★★

단군 신화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결합하여 ㉠을/를 이룰 때 참다운 인간이 형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 정신은 한국 윤리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수렴하는 바탕이 되었고, 이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특성으로 발전하였다.

- ① 동학이 지닌 사상적 특성을 알아본다.
- ② 의천이 제기한 수양론의 특성을 파악한다.
- ③ 팔관회에 담겨있는 문화적 요소를 살펴본다.
- ④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특징을 알아본다.
- ⑤ 사찰에 산신각(山神閣)이 형성된 유래를 조사한다.

40. 다음 사상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09-12-윤리 ★★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린 인간은 일체의 물질 경계에 얻을 바가 없음[無所得]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얻음의 경계조차 말끔히 쓸어낸 ‘빈 마음’으로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어 참된 생각과 굳은 의지를 창출한다.

- ①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 ②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에 빠져들지 않는다.
- ③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긴다.
- ④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고정된 의식에서 벗어난다.
- ⑤ 일체의 감각이나 사유 활동을 넘어서 무아(無我)의 경지를 지향한다.

41. 다음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811-01-윤리 ★

사람과 만물의 이치는 한가지이나, 기운은 ‘통[通-통합], 색[塞-막힘], 편[偏-치우침], 정[正-바름]’의 차이가 있다. 통과 정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색과 편을 얻은 것은 사물이 된다.

- ①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을 회복한다.
- ② 개인의 생명과 정신의 자유를 중시한다.
- ③ 세속을 초월하여 예술적 사유와 가치를 중시한다.
- ④ 현실적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사물의 본성을 따른다.
- ⑤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을 깨우친다.

42. 다음은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의 글이다. ㉠, ㉡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못 설명한 것은?

200811-15-윤리 ★★★

옛날에 어떤 바닷새가 노(魯)나라 교외에 날아들었다. 노나라 임금에 그 새를 맞이하여 묘당(廟堂)에서 연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환대하였다. 그러나 그 바닷새는 도리어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슬퍼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그것은 ㉠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지, ㉡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① ㉠은 주관적 지식의 확실성에 얽매어 있다.
- ② ㉠에 집착하는 하나의 이유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맹신이다.
- ③ ㉡은 사물을 그 자체로 볼 때 가능하다.
- ④ ㉡은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절대시 할 때 가능하다.
- ⑤ ㉡은 일체의 사유를 정지한 채 사물의 변화에 입할 때 가능하다.

43.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는?

교육청 고난도 하이라이트 ★★★

- 꿈 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이 되면 불행한 현실에 슬피 울고, 꿈 속에서 울던 자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사냥을 나신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깨어나서야 꿈이었음을 안다.
- 이 세상에 가을 짐승의 털보다 큰 것은 없고, 태산도 털 끝보다 작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자는 없고,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하는 팽조도 일찍 죽은 것이 된다. 오래된 천지도 나와 함께 살아 있고, 서로 다른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선다.
- ② 겸애(兼愛)를 바탕으로 검소한 생활을 한다.
- ③ 다양함을 인정하는 관용(寬容)의 태도를 지닌다.
- ④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
- ⑤ 구용(九容)의 실천을 통해 언제나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44. 다음 글에서 을이 주장하는 통치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청 고난도 하이라이트 ★

갑: 과인은 나랏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네. 즉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네.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과인과 같이 아니한데도, 이웃나라 백성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은 불어나지 아니하니 어찌서인가?

을: 왕은 전쟁을 좋아하니, 전쟁으로써 비유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했는데 병사들이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는데, 어떤 이는 100보 달아난 뒤에 멈추고, 어떤 이는 50보 달아난 뒤에 멈추어 50보로써 100보를 비웃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갑: 옳지 않다. 단지 100보가 아닐 뿐이지 그것도 또한 달아난 것이다.

을: 왕이 만약 이 오십보백보의 이치를 안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소서.

- ① 왕도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 ② 백성을 선한 본성으로 다스려야 한다.
- ③ 백성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숭상수범해야 한다.
- ④ 정명(正名)을 실천하는 것이 다스림의 관건이다.
- ⑤ 백성을 갖난 예기 대하듯 측은지심으로 다스려야 한다.

\* 확인 사항

○ 9월 26일(土)과 10월 17일(土) 오후 11시에 각각 생활과 윤리 최상위 모의평가를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해당 시간에 정확히 35분간 <http://oq.atom.ac> 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고품질 모의평가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득점자에게 KFC 기프티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